



✓ 진로교육 바로 알기

21세기에 필요한 교육과 자질 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다방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광받던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한때는 외면받던 기술이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안드레아 슬레이처(OECD 교육정책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소개 해드립니다.

Q.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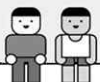
A.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것입니다. 세상이 급변함에 따라 지금의 사고방식이나 업무 수행방식은 점점 쓸모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럼 앞서 말한 '나침반'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앞으로는 **종합적 사고를 통해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혼자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 혼자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에 맞춰져 있는 지금의 교육 방식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만을 구하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호기심과 협력, 그리고 공감 능력과 같은 것들이 더욱 중요시되고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협력을 할 줄 아는 인성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학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사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49회)

✓ 진로상담, 똑..똑..



약대를 가려면 어느 과로 진학하는 것이 좋을까요?

Q 고2 딸이 약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2+4 제도로 바뀌면서 일단 대학에 진학할 때는 다른 학과를 거쳐야 하는데 주위에서는 화학과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들 하네요. 그런데 정작 딸아이는 화학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화학과 외에 다른 과는 약대 진학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A 2009년도부터 약학대학이 2+4 제도로 바뀌면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2년간 학부 과정을 거친 학생들을 선발해 4년간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 입학에는 PEET(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성적표를 비롯하여 서류 및 면접, 공인영어성적표, 대학성적증명서 등을 반영합니다. PEET의 시험은 생물추론, 화학추론, 유기화학, 물리추론 등 총 4개 과목 9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과목이 화학, 생물, 물리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약학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일단 화학, 생물, 생명과학 등의 학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약학대학 지원 자격이 대학 2년 수료를 조건으로 두고 있을 뿐, **특정 학과에 따른 유불리가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대학 전공은 다른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단, PEET를 준비해야 하고, 약학대학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기 위해서는 생물, 화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 직업 경로 이야기

“좋아하는 분야를 따라 전공과 직업을 찾았어요” - 최성현(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어요

최 교수는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도 무엇을 목표로 어떤 전공을 해야겠다는 특별한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듣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자 했다. 그러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우연히 눈에 들어온 통신 분야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주변에서는 앞으로 신소재 분야가 유망하다며 권했지만, 왠지 흥미가 가지 않았던 그는 결국 관심이 있는 통신 쪽으로 진학하여 현재의 교수가 되기까지 이르렀다. 최 교수는 단순히 미래의 전망이나 연봉 등만 따져서 전공을 선택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연구자는 전문성과 다양성 둘 다 갖춰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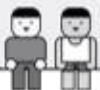
최 교수가 있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만 해도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통신, 반도체, 제어, 컴퓨터, 물리전자, 전력, 바이오 등으로 나뉘는데, 개별 분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개별 분야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게 전기전자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넓게 섭렵하면 도움이 된다. 연구자에게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넓은 영역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기업과 협업하기도 하고, 자문 및 학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차세대 와이파이나 LTE, LTE-A 등 5세대 통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무엇이든 처음에는 잘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실패할까 봐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전하는 데 익숙해지면 자신감도 생기는 법이라고 최 교수는 말한다. 또한 공부를 잘하려면 호기심이 많아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공부가 왜 필요한지, 자신이 먼저 생각해보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의 권유에 의한 공부는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국 길은 보일 것이다. 최 교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구 분야를 찾았고 열심히 매진해 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이제 최 교수의 꿈은 연구자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라고 말한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과학 분야)

✓ 진로소식



학부모를 위한 진로소식지 2014 드림레터 모음집 발간 안내

2014년에 발행된 드림레터(1호~32호)를 모은 자료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주요내용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 직업정보, 진학정보, 진로상담, 직업경로이야기, 적성검사정보, 진로체험 및 관련 소식
열람방법	<p>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 『2014 드림레터 모음집』 다운로드</p> <p>1) 커리어넷 → 진로교육자료 → 드림레터 → 2014 드림레터 모음집</p> <p>2) 커리어넷 → 진로교육자료 → 정보 → 2014 드림레터 모음집</p>

※ 드림레터 모음집
다운로드 →



웹진 꿈트리 자유학기·진로체험활동 종합정보지

아이들의 ‘꿈’과 ‘끼’가 나무처럼 자라고, 진로체험의 소중한 경험들이 ‘꿈틀꿈틀’ 펼쳐지는 웹진 꿈트리를 만나보세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진로체험의 종합 정보 제공 - 사회 각계각층 다양한 진로체험 정보 제공 - 대학 단과대학별 분류를 접목, 진로와 진학을 연계한 특화된 정보 제공
구독대상	- 자유학기·진로체험 관련 정보가 필요한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 관련 담당자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구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트리 웹사이트(http://dreamtree.or.kr) → ‘웹진 구독신청하기’ 배너 클릭 - 월 1회, 구독한 메일로 발송 ※ 수집된 정보(이름, 소속, 메일주소)는 웹진 발송 목적으로만 활용.